

# 탐식, 몸(성전)에 짓는 죄 January 15

• 마태복음 4:1-4

**음식은 늘 우리에게 유혹이 됩니다.**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, 제일 처음 유혹받으셨던 부분도 바로 음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. 음식은 생존을 위한 아주 기본적인 욕구이므로 가장 큰 유혹이 될 수 있습니다. 탐식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. 음미하거나 감사할 틈도 없이 너무 빨리 먹어 치우는 속식, 과도한 욕심이나 집착으로 계걸스럽게 먹는 폭식, 까다롭게 먹는 미식, 사치스럽게 먹는 호식 등 음식에 의한 즐거움에 끌려다니는 것이 탐식입니다. 음식은 단순히 생존을 넘어 정치, 경제적 지위를 가늠하게 하는 지표가 되기도 하고, 음식이 차려진 식탁은 각종 교제의 장이 되기도 합니다.

**탐식은 본능을 자극하고, 육체의 소욕에 굴복하게 만듭니다(갈 5:17).** 사탄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을 육체의 소욕에 굴복하시도록 유혹했습니다. 유혹은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마친 직후, 곧 본능을 죽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살기 위해 행하신 경건의 훈련 직후에 찾아왔습니다. 훈련과 유혹은 맞닿아 있습니다. 사탄은 인간의 허점을 공략합니다. 탐식은 인간의 본능을 가장 직접적으로 자극 할 뿐만 아니라 육체의 소욕을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내게 합니다. 아담과 하와나 엘리의 아들들은 모두 자신이 먹어야 할 것 이상을 탐내는 죄에 빠졌습니다(창 3:6; 삽상 2:12-29). 탐식은 결국 영적 타락을 불러옵니다.

**탐식은 우리 몸을 더럽힐 수 있습니다(고전 6:12).**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므로 거룩하게 유지해야 합니다. 무엇이든 먹을 수 있지만,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. 성령을 거스르는 탐식은 다른 죄들로 연결됩니다. 단지 '음식'의 문제가 아니라 음식으로 인해 뻗치게 되는 욕망이 문제입니다(고전 8장). '음식'을 매개로 방탕, 타락, 쾌락 등의 감각이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. 술이 문제가 아니라 성전이 망가지는 것이 문제입니다(엡 5:18). 인간은 선악을 분별하여 음식의 정도와 먹는 장소를 선택하고 절제할 만큼 선한 존재가 아닙니다.

나는 음식에 지배당하고  
있습니까?

- ❶ '음식'과 관련된 문제들이 나의 영과 육을 압도하고 있습니까?
- ❷ 내가 절제하거나 끊어야 할 '음식 관련 습관/죄'는 무엇입니까?